# 오해·편견과 싸운 그들 광주가 외면

## 우리는 그들을 잊었나 〈下〉

### 국내외 '광주' 알림이들

### 5월단체·재단 내부다툼에만 골몰… 무신경

### 영화·소설 등 DB화로 문화운동 이끌어야

5·18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가 삶과 목숨까지 버려가며 5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해 애쓴 '광주의 은인'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들의 발자취는 물론 영화·소설을 비롯한 각종 5월 문화사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5월 역사의 한 축이 실종되고 있다.

숙명과도 같은 광주항쟁과의 인연으로 삶을 송두리채 헌납한 이들은 지금 '5월의 객(客)'으로 밀려났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하 부미방 사건) 주역인 김은숙(여·52)씨는 82년 3월 18일 미국이 5·18 당시 유혈 진압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데 반발, 부산지역 학생들과 함께 미국문화원에 불을 냈다.

이 사건은 5·18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도화선이 됐다. 부미방 사건으로 5년 8개월간 영어의 몸이 됐던 김씨는 현재 위암 투병 중이지만, 광주의 관심 밖에 놓여있다. 김씨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은 그를 통해 80년 광주를 기억하는 전국의 소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죽음으로써 광주의 참상을 알린 이들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

80년 5월 30일 서강대 3년 김의기씨는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투신했고, 다음달 9일에는 노동자 김종태가 광주학살을 규탄하는 전단을 뿌린 뒤 분신했다. '부산 아지매'로 5·18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광주를 가슴으로 사랑했던 고(故) 황명자 여사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4년전 숨진 그의 영전에는 5월 단체 명의의 꽃 한송이도 없었다.

광주항쟁 정신의 승화를 위해 제작되거나 집필된 영상물과 소설 등도 숱하지만 5·18 주간에도 이 작품들은 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를 비롯한 장선우 감독의 '꽃잎',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 박윤규 작가의 청소년 소설 '방울새는 울지 않는다', 고선웅 연출의 연극 '푸르른 날' 등 다양하다.

이들은 5·18 민중항쟁의 왜곡된 진실을 알리고 5월 영령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은사들이다. 작품은 5월의 전국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했다.

그러나 5월 관련단체는 5·18 공법단체 추진 문제와 31주년 기념행사 경과보고 불협화음,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등 서로 반목과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이외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5월 관련단체의 한 간부는 16일 광주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작고하신 부산 아지매를 찾아가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것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5월의 현주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5월의 인물·역사를 DB화하는 것은 물론 5월 관련 영화제작자, 문화예술가 등을 주축으로 한 연계망을 구축해 5월을 문화운동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5월 광주 알리미로 자처하고 있는 국내외 인사들과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 5·18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월 관련단체에서 일했던 A씨는 "현재 5·18은 5월 관련단체 만의 것이다. 광주를 기억하고 도와준 이들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사라진 것 같다"며 "그들을 빼놓고선 5·18을 결코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18의 미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찰 과학수사 잇단 개가

### 수감중인 30대·50대 DNA 감정 추가 성폭행 들통

강도강간과 절도미수 혐의로 각각 수감중인 30대와 50대의 여죄가 경찰의 DNA 감정으로 밝혀졌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전국을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서모(30)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씨는 광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또 서씨를 도운 공범 김모(2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서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 15일 오전 11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에 들어가 주부 김모(여·38)씨를 성폭행 한 뒤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서울과 대전, 여수 등에서 총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 여성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인 1조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남부경찰도 이날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모(54)씨를 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역에서 총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20~70대까지 여성들의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현장과 이들의 구강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성폭행 사건을 해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운찬 〈8315〉 김종두

# 광주 용봉·운암동 수만가구 정전

저녁시간대 광주시 북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운암동 일대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 수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전이 퇴근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각 아파트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으며, 상당수 상가들도 영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가로등과 도로 주변의 등도 꺼져 일순간 암흑으로 변하기도 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근무 편의점서 절도

### 10대 남녀 2명 구속

여수경찰은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17)군과 여자 친구 김모(17)양 등 10대 남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달 30일 밤 11시께 여수시 돌산읍 모 편의점에 들러,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신입사원이라고 속여 이 직원을 귀가하도록 한 뒤 현금 60만원, 담배 150보루와 잡화 등 모두 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친구 김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사주해 김양이 지난 2일 새벽 4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여수시내 봉계동 모 편의점에서 현금 40만원, 담배 20갑 등 총 2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과 김양은 동종 범행 등으로 각각 12범, 4범의 전과를 갖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 상태에서 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광주 초·중학생 첫 5·18기념식 참석

광주지역 초·중학생들이 처음으로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공식 참석해 선배들의 오월 정신을 기린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비아초 6학년 129명과 충장중학교 학생 88명 등 모두 217명이 오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1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가한다. 광주중앙여고 박수인 양 등 초중고등 학생 6명은 헌화한다.

광주 학생들이 단체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적으로 행사장 출입허가를 받아 5월 희생자 유족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80년 광주항쟁에 재학생들이 다수 참여했거나, 희생자가 생긴 광주학교는 15개교에 달하지만, 정작 광주 학생들은 기념식에 소외돼 온 탓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념식 참석을 교과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시키는 등 민주정신을 배울 기회로 삼음에 따라 행사참여를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5월 희생자 가운데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정작 학생들이 선배들의 얼을 기릴 기회를 갖지 못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시교육청은 또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광주항쟁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오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5월 민주올레' 역사기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16일 오전 광주호 호수생태원 자연학습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숲해설가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북구청은 오는 27일까지 초등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탐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범죄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위법"

### 대법원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을 변호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재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술집에서 술병과 가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지모(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상 변호사가 필요한 데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심리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심 무죄 5·18단체 간부 국가 보상

### 광주고법, 4500만원 지급 판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가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이동계(53)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같은 해 8월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소지한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2월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계엄 해제 후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받고 이듬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30여년만에 재심을 청구한 이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 2000만원 수수료 챙긴 4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유모(30)씨 등 2명과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김모(35)씨 등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00만원을 송금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회원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해 2개의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트북과 무선인터넷 단말기, 대포폰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차량털이후 증거인멸 시도하다 덜미

쌍나팔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금품과 서류 등을 훔친 중학생들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덜미.

○…1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한모(14·광주 모 중학교 2년)군 등 2명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서동 한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정모(42)씨의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원과 서류 50장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정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돈과 서류를 훔친 이들은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100m 가량 인근에서 서류를 불태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 유일 소방직 (전문) —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매월 1일